

보안업계 M&A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아

2~3개 업체 외에는 M&A 계획 없어...반면 제휴 활발

과연 보안업계에 기업간인수합병(M&A)이 표면위로 드러날 것인가?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보안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금력이 여유스럽지 못했던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는 M&A가 현재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게 들리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해주는 얘기로 매출시장에 보안업계가 몇 개 업체가 나와있다는 말도 종종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현재 소문처럼 전해지고 있을 뿐 수면위로 드러난 상황은 그리 많지 않다.

올해 초에 STG시큐리티의 세이프인터넷 인수합병을 선두로 안철수연구소의 한시큐어 인수합병, 인텔리테크의 넷시큐어테크놀로지 인수합병, 한국정보공학의 소만사 인수 등이 최근까지 진행돼 온 보안업계 M&A 상황이다.

또한 사업부 인수로는 최근 안철수연구소가 침입탐지시스템(IDS) 전문업체인 웹넷정보통신의 IDS 사업부문을 인수한데 이어 코스닥등록 정보보안 업체인 퓨처시스템이 보안서비스 업체인 사이버패트롤의 보안컨설팅 부문을 인수했다.

넷시큐어 코스닥 가기 위해

그러나 지난 6월에 진행된 인텔리테크의 넷시큐어테크놀로지 인수는 다른 3개 업체 인수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 넷시큐어테크놀로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인수는 넷시큐어테크놀로지가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조금은 편한 길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기존의 보안업계 간의 인수와는 조금 다른 인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텔리테크는 코스닥 등록업체이고, 9월 1일부터 코스닥 등록업체명이 넷시큐어테크놀로지 로 변경된다.

보안업계 M&A 선두격인 STG시큐리티와 세이프인터넷의 인수합병은 양사가 각각 금융권, 공공분야 등 독보적인 프로젝트 경험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및 기술력 결합으로 보안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예고했으며, 또한 미국 STG그룹 본사와 세이프인터넷 말레이

시아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보안업체들이 북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3월 한시큐어를 인수하면서 종합보안업체를 향한 하나의 전략으로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접근제어솔루션, 공개키 기반구조 솔루션에 보안컨설팅, 통합보안관제 솔루션 분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의 한국정보공학의 소만사 인수는 한국정보공학의 기존의 보안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 확보와 소만사의 자본력 확보 등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간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공학은 소만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보안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IDS 사업부문과 컨설팅 사업부문을 인수한 안철수연구소와 퓨처시스템의 경우는 종합보안회사를 지향하는 업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업체 선정이 영향

현재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보안업계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결합시키는 인수합병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기반보호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전문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몇몇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보안업계가 매출시장에 나와있는 업체는 S사와 E사를 비롯하여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인수합병을 위해 기업을 물색중인 N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중에 1~2개 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기업은 어느 정도는 기술력과 인력이 확보된 업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O사를 비롯하여 몇 개 업체들이 M&A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절대 M&A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